

로또 당첨 켈거리인들 먼저 '가족 생각'

로또에 당첨되어 거액이 생기면 켈거리인들은 무슨 생각부터 할까?

새해 로또 6-49 티켓으로 100만 달러를 받은 켈거리 여성은 세 딸에게 당첨금을 나누는 생각부터 했다.

셸리 마이어스는 보나비스타 프로메나드 호 안에 있는 로또 익스프레스 키오스크에서 티켓을 샀다.

그녀는 12월 30일 신문에서 당첨번호를 확인하면서 당첨이 보장된 상품 추천에서 자신이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제 손자에게 다시 한번 저를 위해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어요.”라고 마이어스는 말했다. 마이어스는 자신의 행운을 딸 스테파니 마이어스, 수잔 마키, 캐리 존스틴과 함께 나누고자 했다.



복권 당첨이든 공유할 것이라 네 명의 여성 모두 어떻게 그들의 횡재를 쓸 것인가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담보 대출금 지불, 주택 개조, 미래를 위한 저축 등이다.

하지만 마이어스는 가족 전체를 위한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행이 안전해지면, 우리

는 모두 디즈니 월드에 갈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가족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로또 맥스 티



켓으로 백만 달러를 얻은 켈거리 여성 매리 데 클루테는 돈 중 일부는 은퇴를 위해 쓰일 것이고 일부는 남편이 방탕생활을 하도록 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에게 좋은 걸 사줄거야.”

배우자를 위해 그녀는 “새로운”보트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6·25 참전 용사 빈센트 코트니 자전적 소설 '패트리샤...' 출간



캐나다 출신 6·25전쟁 참전 용사 빈센트 코트니(88)씨가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패트리샤 전우들과 함께(With the Princess Pats in Korea)'라는 책을 냈다. 참전 용사인 그가 작년 6·25 70주년을 맞아 집필한 자전적 소설이다.

작품은 캐나다군이 부산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1950년 8월부터 중공군 5000명과 용감하게 맞서 싸운 가평지구 전투(1951년 4월 24~25일)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조 도위(Joe Dowey)라는 16세 소년병의 눈으로 캐나다 육군 패트리샤 공주 경보병 연대(PPCLD) 2대대 소속 참전 용사 800여명이 겪는 생사고락에 대해 썼다. 주인공

은 학교를 자퇴한 뒤 크라이슬러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다 1951년 열여섯의 나이로 참전한 코트니씨 자신을 모델로 한 것이다. “사흘 꼬박 밤새우며 카펫처럼 납작해진 시체 위를 다녀야 했다” “배에 총을 맞고 쓰러진 동료의 피부가 초록빛으로 변해갔다” 등 전장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6·25 당시 한국으로 파견된 캐나다군은 2만6000명이다. 전사자가 516명으로, 참전국 중 다섯째로 많았다. 코트니씨는 본지에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흔 줄에 접어든 전우들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했다. 이어 “놀라운 노력과 무적의 정신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인들 덕분에 참전 용사들은 우리가 이룩한 성과에 자신

감과 감사함을 갖는다”고 했다. 또 최근 국가보훈처 등이 마스크 11만장을 참전 용사들에게 배부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를 잊지 않아줘서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힘을 얻는다”고 했다.

코트니씨는 방한 횡수가 40여회에 이를 만큼 캐나다 참전 용사 추모 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해마다 11월 11일 오전 11시엔 전 세계가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도 그의 아이디어다.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명예 부산시민증을 받았고, 지금은 한국인 아내와 재혼해 온타리오주 윈저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다.

남편에 목줄 채워 기계 한 캐나다 여성 "내 개 산책시키는 것"



퀘벡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증 대책으로 시행 중인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피하기 위해 남편의 목에 목줄을 채워 산책한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BBC에 따르면 퀘벡주 셔브룩에서 지난 9일 밤 한 여성이 동행하던 남성의 몸에 개줄을 메고 산책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퀘벡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9일부터 한 달간 매일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산

책시키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부부는 이날 통행금지 시작 1시간 이후인 밤 9시경 산책에 나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여성은 경찰관이 단속하자 정색하며 “내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목줄을 채운 것은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규정에 어긋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셔브룩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경속 경찰관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여성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의 여성은 이날 벌금으로 1546 캐나다달러(약 133만원)를 부과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 관한 자유의 제한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매일 밤 다시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통보하기까지 했다.

현재 유튜브 등에서는 당시 여성이 남성에 목줄을 채워 눈길을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 생중계된 듯한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퀘벡주는 통행금지 실시 첫 주말인 9, 10일 이들 동안 통금 위반과 관련해서 750건의 벌금을 부과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다민족 선교를 지향하는

캘거리 한우리교회

Calgary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우리는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민족을 향해 나가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김재욱 | 교육,선교 담당:이강훈 목사, 이한준 전도사 | 차세대 목사: 이인예배,양욱 담당 목사: 오상학

주 일 예배	1부(교사)예배	오전 9시 30분
	2부 대예배	오전 11시
	교회학교 예배	오전 11시
	청년예배(KM/EM)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분	
화요 중보기도	저녁 7시	
토요새벽기도	오전 7:00	

www.calgaryhanwoori.com

예배처소 : Mount Royal University(Jenkins Theatre)
4825 Mt. Royal Gate SW. Calgary AB. T3E 6K6

태양 정육·반찬·떡집

정육	반찬	떡류
LA갈비 찜갈비 소불고기 제육볶음 삼겹살 목살 사골	대패삼겹살 길이삼겹살 양념갈비 돼지불고기 양념불고기 꼬리 샤브샤브	김치, 부추김치 무말랭이 고추무침 오징어젓 마른오징어무침 멸치볶음
		떡국떡 가래떡 인절 절편 떡볶이떡 팔시루떡 녹두시루떡
		백설기 콩백설기 무지개떡 콩찰떡 송편 현미콩찰떡 현미떡국떡 현미가래떡

"매달 두번째 화요일 휴업"

떡주문은 2~3일전에 해주십시오!

영업시간 : 월~토 11:00AM~7:00PM / 일요일, 할리데이 11:00AM~4:00PM

117, 15th Ave. SE Calgary AB
TEL. 403-233-2252 / 613-5977